



2면

전북 농수산물 수출 7억 달러 도전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음 1월 9일)

제367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도,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혼신

18대 핵심과제 등 추진
농가소득 5700만원
식품기업 매출액은
6조5000억원이 목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경연)는 민선 8기 도정 5대 목표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제시하고 6대 전략, 18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도에도 식품기업 매출액 6.5조원, 농가소득 5,700만원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창업1번지 조성 위한 청년창업 기반 확대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패키지 지원, 청년농업인 임대스마트팜 건립 등 신규 17ha(누계 52ha)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창업보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 700명을 신규 육성하고, 정책자금 이차보전, 영농정책 지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전북자치도는 수요 창출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한다고 밝혔다.

도내 유망 식품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하여, 기업과 지역농업이 연계한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한다.

지역 먹거리의 조직화, 친환경 급식의 도내 농산물 공급 확대와 함께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 물류기기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동, 호주, 캐나다 등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증가 및



호성동 현장행정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은 5일 견지도서관과 소양천변, 오산마을 등 호성동 일원에서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에 나온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관련기사 5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망품목 육성 등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종자생명산업클러스터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중 신청하고,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은 상반기에 착공, 임상시험센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산업 기반을 한층 견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남원 ECO 스마트팜, 고창 사시사철 김치 등 농생명 선도지구 7개소를 연내에 농생명산업 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각 지구별 관련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농업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저탄소, 친환경 육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유리·비닐온실 등 ICT 및 시설 지원 180ha, 스마트 시설 축사 지원 150개소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저탄소 농축산 프로그램 및 저탄소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한다.

이밖에 안정적 농촌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9,000명 도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3개소 신규 조성 등으로 연간 60만명 이상의 인력을 농촌에 공급해 농번기 인력수요에 대응한다.

안정적 농업경영 보장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단가인상,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농

촌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는 등 농가 소득 안정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우수시설 리모델링 4개소를 신규 조성해 농촌 서비스 공간을 확대하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

화 지원센터를 3월 중에 완공해 농촌의 열악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국적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농촌 돌봄서비스 및 여성농업인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혁신산업국장은 "2025년 실행 목표 달성을 위해 총 331개 사업, 1조6,931억원을 집중 투자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글로벌 축제도시' 도약 도내 지역축제 36개 선정

도, 대표 14·작은마을 14·특화형 8개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로 관광 활성화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사계절 내내 펼쳐질 다양한 축제를 통한 글로벌 축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 중점 육성할 지역축제 3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축제심사위원회의 축제의 기획·콘텐츠, 조직 역량,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지역 특색이 돋보이는 향토·문화·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시군 대표축제 14개, 작은마을 축제 14개, 지역특화형축제 8개를 최종 선정했다.

2025년 시군 대표축제로는 김제 지평선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 선정됐다. 군산시간여행축제, RED FOOD 페스티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임실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익산서동축제, 정음구절초꽃축제, 완주와 일드르컬푸드축제, 진안홍삼축제

는 우수축제로 선정됐으며, 익산서동축제, 정음구절초꽃축제, 완주와 일드르컬푸드축제, 진안홍삼축제는 우수축제로, 전주비빔밥축제와 남원홍부제가 유망축제로 각각 선정되었다.

작은마을축제로는 얼골없는 천사 축제(전주), 풍당보리축제(군산), 숯터모시축제(정읍), 혼불문화축제(남원), 지평선 광활 햇감자축제(김제) 등이 선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특색 있는 이야기와 문화를 축제로 담아낸다.

또한, 지역특화형 축제로는 낙화

놀이축제(무주), 하전바자락 오감 체험페스티벌(고창), 신전마을도자기 전통가미축제(임실) 등 각 지역만의 독창적인 테마를 살린 축제가 선정되었고, 관광비수기인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축제로는 풍광놀이축제(무주), 산타축제(임실)가 선정되어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도는 선정된 축제에 대해 도비 보조금 지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전문가 사전 컨설팅, 현장평가, 우수 축제 벤치마킹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을 통해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미디어파사드, 낙화놀이, 반딧불 체험 등 지역축제와 연계된 야간 볼거리와 특별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촉진하여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장은 전북의 차별화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를 통해 사계절 내내 다양한 매력을 선사할 것이며, 올 한해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축제 현장에서 새로움과 감동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5·6공구가 2월 5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5-12호)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에 총 40개소(1월 31일 현재)가 운영 중이다.

새만금 국가산단 5·6공구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

1·2공구에 이어... 수출입 기업·외국인 투자기업 등 유치 '탄력'
새만금개발청, 잔여 공구 대상 확대 지정 추진 등 인센티브 강화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6월 1·2공구에 이어 5·6공구도 추가로 지정되면서, 보세구역이 기존 44만㎡에서 808만㎡로 약 1.8배 증가하게 됨으로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 전시,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으며, 수입 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은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가 갖추어진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에 더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

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종합보세 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내외 수출입 기업 유치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한 층 더 강화해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

정을 추진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정읍시 JEONGEUP-SI

정읍의 3·6·9 경

보물을 추천해 주세요!

정읍시 대표 관광지 정읍9경을 관광명소(景)외에 정읍의 대표 특산품(品), 정읍의 대표 음식(味)로 확대하여 정읍보물 3·6·9 경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나만의 정읍보물 3·6·9 경을 추천해 주세요~!

3미

6품

9경

정읍 3미 味

향토색을 품고 있으면서 지역민과 관광객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음식 선정

정읍 6품 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선정

정읍 9경 景

지역 대표성 및 상징성, 경관 및 문화적 우수성, 보전가치 및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광명소로 선정

접수 방법 홈페이지 참조
문의 : 063-539-5193

접수 기한 2025. 2. 14(금) 18시

응모 혜택 추첨을 통해 정읍주요관광지 입체퍼즐을 20명에게 배부